



보도시점 (온라인) 2026. 7. 16.(목) 10:30
(지면) 2026. 7. 16.(목) 석간

행안부-문체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 정책협의회’ 출범

- 7.16, 관광 혁신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양 부처 협력체계 본격 가동
- 첫 협업 시범사업, 하반기 ‘지방정부 관광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이하 문체부)는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관광 정책협의회(협의회)’를 출범하고, 오는 7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지역 살리기에 합심, 부처 칸막이 허물고 과제해결 중심 협력 플랫폼 가동

협의회는 양 부처 실장급을 공동 위원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 혁신 안건을 다룰 예정으로, 향후 다루어질 안건에 따라 유연하게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는 양 부처가 협력할 주요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주민 참여형 관광새마을운동, △관광형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디지털관광주민증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연계 관광사업지원, △지방공공기관과 한국관광공사 협업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양 부처가 추진하는 지역관광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첫 협업 시범사업, ‘지역관광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특히, 첫 협업 시범사업으로 ‘지역관광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올해 하반기 개최기로 하였다. 새 지방정부 주도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차별화된 관광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관광의 섷별’ 이름으로 추진 될 본대회를 통해, 민

선 9기 지방정부가 각지의 특색을 살린 관광정책과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2010년 이후 매년 국내 우수 관광자원과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선정·시상해 온 우리나라 대표 관광분야 시상제도인 문체부 주관의 ‘한국관광의 별’을 올해는 확대 개편하여 양 부처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의 대전환을 이끌 강력한 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과 관광이 함께 크는 지역관광 전성시대 실현을 위해, 관광정책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지방정부 지원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긴밀히 협업하여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행안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관광객들이 지역을 직접 찾는 계기가 되는 지역 관광은 소비 진작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 수단”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관광 시책으로 관광객들이 먼저 찾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에 양 부처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책임자	과장	박미경 (044-203-2811)
		담당자	사무관	최혜연 (044-203-2809)
		담당자	사무관	김동명 (044-203-2819)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책임자	과장	채경아 (044-205-3902)
		담당자	사무관	김태연 (044-205-3904)